

문화광장



이 나 연
제주도립미술관장

초일류 글로벌 아트페어라 불리는 프리즈가 서울을 아시아 첫 개최지로 선정하자마자 미술계는 떠들썩했다. 아시아 미술시장의 중심은 홍콩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싱가포르, 상하이, 서울이 차기를 노리는 상태였다. 프리즈의 입성으로 단숨에 서울이 불안정한 홍콩의 정세를 대체할 아시아 미술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했다. 해외 주요 갤러리들이 분점을 내는 곳도 늘 홍콩이었는데, 이제는 서울로 옮겨져 가는 중이다. 한국의 갤러리들이 아시아 브랜드를 별반한

프리즈의 서울 입성

쟁쟁한 해외갤러리들과 같은 도시에서 나란히 경쟁하는 시대가 됐다. 그에 더해 한국미술시장은 근 2년간 엄청난 활기를 띠었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 컬렉터들의 수가 늘었다. 그들이 한국미술시장을 활기로 이끌었던 흐름도 하반기에 주춤하리란 전망이 많았지만, 미술시장의 호황불황을 떠나 현재 프리즈 자체에 대한 관심은 최고조다.

한국미술시장을 대표하는 국내 최고 아트마켓인 키아프가 프리즈와 개최기간을 맞추고 장소도 같은 컨벤션 센터를 쓰면서 잘 짜인 협업 프로젝트를 만들어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페어와 국내에서 가장 큰 페어가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열리는 짧은 기간 동시에 열렸기 때문에, 한국 미술계에는 말 그대로 소동이 벌어졌다. 미술계 vip들이 대거 유입되는

8월 30일부터 그들이 체류하는 기간 내내 갤러리들이 주최하는 전시 오프닝 파티며 프리즈를 염두에 둔 에피타 파티 등이 연달아 열렸다. 그들의 방문에 맞춰 작가들 스튜디오 오비짓 일정을 짜고, 그 작업실 방문을 준비하는 작가들도 덩달아 분주했다.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전시장이든 클럽이든, 서울은 매일매일 들를 곳과 만날 사람들로 들썩었다. 프리즈를 계기삼아 아주 자연스럽게 이태원과 강남 일부, 사간동 일대는 미술주간, 즉 아트위크가 된 셈이다. 이쯤되면 프리즈와 키아프의 판매실적은 중요하지 않다. 전세계 아트피플이 서울을 경유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서울이 홍콩처럼, 프리즈 시즌에 가야 하는 미술계의 하나의 중요 도시가 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프리즈를 위해 서울을 찾은 이들이 단지 서

울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때맞춰 열리는 부산비엔날레 오픈을 찾는 이들도 있고, 평소 친분이 있고 궁금했던 사립미술관을 찾으러 제주에 오기도 한다. 비근한 예로, 얼마 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장이 서울을 방문한 길에 제주를 찾아 도립미술관과 미팅을 하기도 했다.

성지순례하듯 매년 아트비젤 홍콩을 떠나고, 2년마다 베니스비엔날레를 가는 티켓을 끊으며, 어떻게 해야 다른 이들이 성지순례하듯 미술을 즐기 위해 제주를 찾을까라는 고민을 한다. 제주비엔날레가 그 초석을 깔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갖는다. 서울은 프리즈를 데리고 왔지만, 제주는 무엇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물론 바젤이나 프리즈보다 더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역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방법도 있다.

사설

신남방정책 시동, 제주경제 도약 기회로

제주도가 민선8기 핵심정책인 신남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제주-아세안+a정책 민간전문가 워킹그룹'이 꾸려졌다.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 국가와 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했던 외교 정책이다. 제주도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아세안 지역이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큰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워킹그룹은 지난 2일 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신남방정책을 '제주-아세안+a정책'으로 명명하기로 결정했다. 워킹그룹은 관광·농수축산·문화·통상·국제 교류 분야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제주-아세안 플러스 알파정책의 핵심부서인 관광, 문화, 국제교류, 통상, 농수축산의 담당자들이 함께해 향후 운영방안 등 실무를 협의한다. 제주도는

분야별 목표와 방향이 정립되면 내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신남방지역 수출시장 개척 등 교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영훈 도정의 신남방정책은 제주경제의 한계와 취약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남방정책의 인구 정책이다. 제주도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아세안 지역이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큰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이들은 소비시장 연평균 15% 성장하는 등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제주경제는 외부충격에 약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2017년 중국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 때 제주관광이 직격탄을 맞은 바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관광시장 다변화 등 제주경제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열린마당

추석, 주방용 소화기로 주방을 지키세요



고 창 우
서부소방서 한경119센터

명절에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집마다 음식을 조리한다. 그중에서도 각종 전과 튀김 등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들이 있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식용유는 발화온도가 약 280℃~360℃로 한번 불이 붙으면 불을 소화해도 식용유 표면에 재발화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식용유 등 유류화재에 물을 뿌릴 경우 기름이 주변으로 비산하면서 불이 주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초기 식용유 화재에는 양배추,

상추 등 잎이 넓은 채소나 조리구의 뚜껑을 덮어 질식 소화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이처럼 대처하기가 많이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주방용 소화기(K급 소화기)를 주방에 비치해야 한다. 주방용 소화기의 약재는 식용유와 접촉 시 식용유 표면에 비누화 현상을 일으키며, 동시에 식용유 내부의 온도를 냉각시키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2017년 6월 12일 개정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 등의 K급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환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 우리 모두가 혹시 모를 주방 화재에 대비 K급 소화기를 배치해 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주길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도, '사회적경제 스페이스 엑스' 운영

"질적성장에 역점 기울일 것"

○...제주도가 사회적경제 민·관 협력 네트워크 '사회적경제 스페이스 엑스(Space X)'를 10월부터 운영.

사회적경제 스페이스 X는 기존의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자문·권고하는 조직이 아니라 제주가 이미 갖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 등을 연계·활용해 현장에 로사향들을 윈스톱으로 케어·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엑셀러레이터(촉진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 최명동 제주도 경제통상일자립 인규베어링 중심의 양적성장 에 행정력을 기울여 왔다면 앞으로는 기업현장의 예로사향을 해결하고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질적 성장에 보다 역점을 기울 이겠다"고 점언.

기후변화에 조기 개장 검토

○...제주시가 지난 7월 1~8월 31일 관내 8개 해수욕장을 운영 한 결과 함덕해수욕장 28만명, 협재해수욕장 22만명 등 전체 이용객이 지난해 대비 30% 늘어난 102만명으로 집계.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해수욕장 총 이용객 159만4000명보다는 적지만 2020년 84만5000명, 2021년 79만 1000명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 해수욕장 폐장 후에도 이달 15일까지는 15곳에 총 60명의 민간 요원을 배치해 안전사고 에 대비하고 있다는 제주시는 "기후변화로 인해 일찍 찾아오는 여름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에는 운영 시기를 6월 중순으로 앞당기는 등 마을회 등과 협의 해 조기 개장도 추진할 예정"이 라고 점언.

중·고교 신설 모두 연기... 이래도 되나

'서부중'과 일반고 신설이 예정된 시기에 불가능해 돼 당국의 준비 부족에 대한 성토가 적지 않다. 도교육청이 학생수 증가에 맞춰 학교 신설을 최우선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1개교도 아닌 중·고교 2개교 모두 개교 연기를 초래한 건 비판받아 마땅하다. 교육당국이 여러 이유를 대지만 사전 준비나 소통의 부족을 지적 않을 수 없다.

도교육청은 향후 5년간 학생수·학급수 전망을 담은 2022~2027학년도 중기학생배치계획을 통해 '서부중'과 일반고 개교 연장을 공식화했다. '서부중'은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2024년에서 2027년으로 늦춰졌다. 일반고도 2025년 제주고 부지내 신설에 나섰으나 반대 여론에 밀려 김광수 교육감의 '신제주 권역·중고 신설 이전' 공약의 타당성 용역 등을 반영 후 추진

키로 했다. 사실상 중·고교 개교 모두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서부중'과 일반고 신설은 전 이석문 교육감부터 추진해 온 핵심사안이다. 중학교 학생수가 2024년 이후 큰 폭 증가세를 보이고, 고등학교도 2027년엔 크게 늘면서 과밀학급 해소 가 절실해지는 까닭이다. 도교육청이 일찍 학생수 예측을 통한 개교에 나서고도 끝내 '연기' 현실을 맞은 건 충격적이다. 그간 지가 상승, 이해 당사자 반발 등이 원인이었지만 교육 당국의 준비부족, 소통부족이 더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과밀 학급 해소가 쾌적한 교육환경 과 양질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우선 현안임을 잊어서 안된다. 도교육청은 막판까지 개교 일정을 앞당기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술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립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LUPS & AVR)
구내통신공사
열린 기술 습득, 기술인력 개발,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국내육성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원터프린스, 탐나는봉, 사라향, 하례조생, 제라몬, 미니향
과수능가 보급품종(1.3년생), 가정원예(조경수)(2-7년생)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장!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010-4736-2479 / 010-6500-232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리991번길1(수산리735)